Lab Weekly Insight 1

Publish or Perish, Study or Leave

연구자는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주재홍 (Ph.D.,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Ⅰ. 핵심 내용

학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말 중 하나는 “Publish or Perish”라는 경구입니다.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해야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최근의 논의는 이 문구가 단순히 개인의 성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학문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술 논문의 정량적 지표가 연구자의 학술적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연구의 가치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도출했는가로 좁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Moris et al., 2026).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연구실에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특히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Publish or Perish”보다 “Study or Leave”가 먼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Study는 단순히 논문을 읽고 과제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즉, 논문은 그 공부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공부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니어야 합니다.

Ⅱ. Publish or Perish는 연구자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연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Publish or Perish의 문제는 출판 자체가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논문의 출판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철저하게 수행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Teixeira da Silva & Nazarovets, 2026). 다만 논문의 출판이 연구자의 지위, 고용, 연구비, 가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인정 수단이 되면서, 출판 자체가 목적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Teixeira da Silva & Nazarovets, 2026). Moris 외 (2026) 역시 출판 수, 저널의 영향력(impact factors), 인용 지수(citation indices)와 같은 정량적 지표가 학문적 우수성이 정의되고 보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력 있는 생산성(impactful productivity)과 지표 중심의 학계 생존 전략(metric-driven academic survival)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Moris et al., 2026). 특히 그들은 학문적 성취를 단순한 산출량으로 판단하기보다 연구의 깊이, 진정성,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논문을 많이 쓰는가와 발표할 만한 연구를 만들어내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와 읽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Teixeira da Silva와 Nazarovets(2026)도 지식의 발견과 창출을 위해서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을 논문이라는 형태로 정리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보여주고, 비판받고, 수정하고, 다시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다만, 핵심은 논문 출판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논문을 출판하는가에 있습니다.

Ⅲ. AI가 연구를 도와주는 시대일수록,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AI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시선은 다양합니다. AI를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연구자의 사고와 학술적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병존합니다. Cha 외(2026)는 생성형 AI가 학술 연구가 구상되고 생산되고 평가되는 방식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저자성, 동료심사, 대학원 교육, 그리고 연구자의 학술적 역량 보존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들은 AI를 학술 연구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인지적 위축(cognitive atrophy)과 기술적 약화(deskilling)의 가능성도 함께 논의합니다. 아울러, AI에게 글쓰기나 연구 과정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단순히 작업을 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의 일부까지 위임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합니다. 역으로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연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Cha 외(2026)는 또한 AI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뒤처질 위험과 AI를 활용할 경우 인간 연구자의 고유한 인지적 역량이 약화될 위험 사이의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저는 AI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질문을 확장하고, 복잡한 생각을 구조화하고, 표현을 다듬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왜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간 고유의 주관, 고심, 판단 등을 AI에게 넘겨버린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연구자가 맞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연구자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생각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AI의 좋은 활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연구 초입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I가 제시하는 답이 좋은 답인지,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답인지,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Ⅳ. 그래서 연구 초입에서는 Publish보다 Study가 먼저입니다.

Manabu(2026)는 AI와 Publish or Perish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연구자는 출판 수와 같은 측정 가능한 산출물을 중심으로 학문이 작동하면서, 출판이 연구자의 인정과 학문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요약하고, 쓰고, 수정하고, 검토하면서 학문 공동체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가 수행하는 주변적 과업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학술적 판단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AI가 이러한 과업들을 대신하게 될 경우 연구자의 학술적 도제 과정(scholarly apprenticeship)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처음 들어와 공부를 시작한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언제 논문을 쓸 수 있을까?”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것, 아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초입 단계에서는 Publish or Perish를 Study or Leave로 바꾸어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한 Leave는 단순히 연구실, 그리고 대학원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Study를 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적어도 하나의 연구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의 이론을 깊게 공부하고, 하나의 연구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의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역시 저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공부하러 왔다면,

연구하러 왔다면, 뭐라도 하나는 건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논문일 수도 있고, 연구방법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Ⅴ. 연구 과정은 고통(Hurt)을 견디며 다른 사람의 심금(Heart)을 울리는 과정입니다.

대학원 공부, 그리고 연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극복해나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 대입하였을 때, 우리는 왜 논문을 읽고, 또 읽고, 연구방법을 배우고, 분석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혼자 만족하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질문을 받고, 비판을 받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논문이 게재되지 않을 수 있고(reject), 연구 아이디어로서 인정받기 위해 상당 수준 논문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major revision),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eixeira da Silva와 Nazarovets (2026)는 높은 게재불가율과 엄격한 심사 환경에서 발생하는 논문 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게재불가(manuscript rejection)와 학술지 성격과 적합하지 않은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게재불가(desk rejection)가 연구자에게 고통, 번민, 좌절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익명의 동료 평가(peer review)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Teixeira da Silva & Nazarovets, 2026).

저 또한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 고통(Hurt)이 있어야 우리 분야의 연구자를 포함한 독자들의 심금(Heart)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읽고, 쓰고,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공학과 HRD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왔다면 이러한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oore와 Choi(2026)는 HRD에서 연구와 실천 사이에 지속적인 research-practice gap이 존재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연구 초기부터 실천가가 참여하고, 연구문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RD 학자이자 실천가는 학문적 연구와 실제 조직의 적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가지며, 학문적 엄밀성과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연결하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 쓰임 있는 지식을 공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연구한 결과가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내 연구를 읽은 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는가? 혹은 적어도 내가 바라본 세상을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가? 저는 연구가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고통의 연속이겠으나,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생각을 다듬어 나갈 때 비로소 나만의 연구가 아닌 우리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Ⅵ. 결론

연구실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논문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질문을 갖는 사람, 그 질문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비판과 실패를 견디면서 다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경험적으로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원을 들어와 연구실에 있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 하나는 반드시 꼭 본인의 것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하나의 이론이어도 좋고, 하나의 연구방법이어도 좋고, 하나의 연구주제여도 좋습니다.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초입에서는 Study or Leave를 떠올리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Publish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Publish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나 숫자의 축적에만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고민한 것을 세상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게 하는 것. AI가 논문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시대가 올수록, 오히려 내가 왜 이것을 연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연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궁금해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Ⅶ. Insight Questions

1.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본인만의 연구 질문은 무엇입니까?
2. AI가 본인의 연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3. 본인은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까? 졸업한 이후에도 연구자로서 초심은 그대로입니까?

Reference

Cha, J. S., Alsaid, A., Pitts, B. J., Boyle, L. N., Wickens, C. D., & Lee, J. D. (2026). Publish or perish, with or without AI?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1-3. https://doi.org/10.1177/10711813261475214

Manabu, T. (2026). The machine consumes itsel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d of publish-or-perish.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1-24. https://doi.org/10.1007/s42438-026-00666-0

Moore, K., & Choi, Y. (2026). What are we learning about the research-practice gap from HRD scholars and HRD scholar-practition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https://doi.org/10.1002/hrdq.70019

Moris, D., Ziogas, I. A., Toledo, A., Martins, P. N., & Giorgakis, E. (2026). Publish or perish: Rethinking productivity in academic surgery. The American Surgeon, 92(6), 1627-1629. https://doi.org/10.1177/00031348251412260

Teixeira da Silva, J. A., & Nazarovets, S. (2026). The publish or perish, publish and perish, publish then perish, and now retract and perish cultures in academia. Naunyn-Schmiedeberg's Archives of Pharmacology, 399(3), 3115-3131. https://doi.org/10.1007/s00210-025-04651-5